

“잊혀진 匠人 스님 찾아

문화재 파수꾼 최선일 박사



최선일 박사는 ...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선일 박사는 1990년 홍익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200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원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강진청자자료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있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실관 감정위원으로 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서울시 문화재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1996년 강진 고성사 현주 스님으로부터 '견철(見哲)' 법명을 받았으며 2013년 현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법 스님으로부터 '고불(古佛)'이란 호도 받았다. 저서로는 <조선 후기 조각승과 불상연구>와 <조선 후기 승장인물 사진-불교조소>가 있으며 논문은 <조선 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 <순천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과 조각승 계찬> 등 40여 편을 썼다.

성보문화재를 접하다 보면 문득 생기는 의문이 있다. '과연 이런 작품은 당시에 누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이다. 우리는 사찰에서 불상과 불화 등 수많은 성보들을 접하지만 정작 이런 성보를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 더군다나 그 대부분이 스님들이 만들었음에도 이런 스님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이런 스님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이가 있다. 바로 미술사학자 최선일 박사다. 최 박사는 20여 년 동안 전국 사찰의 성보를 만든 옛 스님들의 발자취를 조사해 그들이 빛을 보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7~19세기 조선시대 곳곳의 사찰에는 불상과 불화를 만든 조각승과 불화승들을 비롯한 수많은 승려 장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잊혀진 '승장' 이죠. 수행과 함께 장인으로도 높은 경지에 오른 이들이었습니다."

11월 24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에서 만난 최 박사는 먼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최 박사는 "예로부터 사찰에서 불상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으며, 승장(僧匠)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불상을 좋아하는 불상이 승장 연구로

최 박사가 '승장'에 대해 주목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1997년 전남 강진청자박물관에 학예연구사로 일하게 된 최 박사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인근 사찰을 답사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부처님 모습이나 사진을 스크랩할 정도로 부처님 상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사찰을 돌아본 최 박사는 문득 궁금증이 생겼다. 인근 사찰의 불상이 비슷했던 것이었다. 한층 강해진 금강승에 불상을 꼼꼼히 살펴본 최 박사는 동일한 조각승이나 같은 계보에 속한 스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됐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나 찾아보았어요. 승장에 대해 조사한 것은 산발적일 뿐인 상황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2001년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게 되며 승장에 대한 기록물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다.

"성보를 문화재로 지정할 때 근거자료가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조선 후기 작품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연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문이나 화기에 작가의 이름이 있더라도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거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할 만큼 훌륭한 성보인데도, 자료가 없어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최 박사는 "일본에서는 1980년대에 이미 수백 년 전 활동한 승려 작가들의 기초자료 조사가 끝나기에 기반해 개별 승장들에 대한 평전,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0년 12월 17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색난 스님의 활동과 불상 양식을 학계에 처음으로 알리는 논문 '조선 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를 쓴 이후 최 박사는 주종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짬짬이 전국 사찰 300여 곳을 돌았다.

각 사찰에 전하는 사적기(寺蹟記)라든가 사적비(寺蹟碑), 상량문과 탑비 등의 자료를 모조리 훑었다. 또 불상 발원문, 불화의 화기, 사찰의 사적기, 비문, 금석문 등이 있다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사진을 찍고 글로 옮겼다.

"한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평균 세 번 정도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 시 사찰 스님들에게 인사를 올리고 사정을 설명 드려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찰 입장에서도 생판 모르는 학자가 문득 찾아와 문화재를 보자고 하면 허락하기 어렵죠. 수차례 방문해 사정을 해가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갔지요."

조각·공예·회화 등 망라한 사진 퍼내

홍익대 미술사학과 선배인 안규숙 박사가 최 박사에게 큰 도움이 됐다. 함께 승장들의 행적을 집요하게 추적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6,000명에 달하는 스님 장인들의 실체를 밝혀냈다. 최 박사는 안 박사와 함께 이런 내용을 정리해 학계 최초로 <조선 후기 승장 인물사전>을 펴냈다. 2007년 '불교조각' 편을 시작으로 2008년 '불교회화', 2009년 '공예와 전적', 2010년 '건축과 석조미술' 편이 나왔다.

이 인물사전은 1600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시대 성보를 만든 승장들의 주요 창작물과 활동 내역을 처

10년 넘게 전국사찰 300여 곳 답사

匠人 스님 '승장' 6000명 실체 밝혀

문화재 기간 밝히고 환수에도 기여

재일교포 정조문 회장, 다큐영화 제작

불교문화재센터 건립 서원 세우

음 밝힌 귀중한 자료다. 최 박사는 "기초자료 2,000여 건을 바탕으로 10년 넘게 자료를 갈무리했다"고 했다. 건축가로 활동한 스님만 1925명에 달하고 직접 석비 등을 세운 도편수 스님만 632명이 넘었다.

최 박사는 '승장'의 위상이 당시에 높았다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대강백 등의 화기 등에서 당시 스님들이 여러 분야에 통달했으며, 그 역할이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사찰 불상의 발원문과 사적기 등을 보면 대부분이 스님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들 스님들의 작품 경향과 사제간의 계보 등을 밝히는 일은 불교미술사의 저변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근간을 밝히는 작업입니다."

최 박사는 불교의 흥기였던 신라와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억울승의 시기였던 조선시대까지도 해도 맥을 이어왔다고 설명한다. 당시 유학자들이 공예를 천시했기에 스님들이 있어 그 명맥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런 승장들의 맥은 왜 잊히게 됐을까. 최 박사는 조선 후기 가람정비가 완료되며 신규불사가 줄어든 것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임진왜란 전후 사찰 중창과 중건은 승장(僧匠)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이후 후기로 가며 점차 민간이 이를 맡게 됩니다. 이판과 사판의 구분이 강해지고, 승단 내에서도 승장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는 것도 한 요인입니다. 또 불상과 공예품이 사찰마다 이미 구비돼 있어, 승장으로 대변되는 전문장인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지요. 이후 불사에서는 일반 민간의 장인들이 본격 참여하게 됩니다."

최 박사는 승장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은 이들이 지닌 원력을 현재의 불자들이 이어가게 하는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불사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주한 이의 원력, 평생을 불로써 바친 장인의 원력이 함께 녹아든 결과입니다. 이런 원력 하에는 스님과 대중들의 구분이 없었어요. 이런 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문화재 가치 재조명하는 근간

최 박사는 현재의 법맥, 강맥과 같이 불화와 조각 등에도 계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제식으로 어른 스님이 젊은 스님에게 이를 전하고 이것이 유파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화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아직까지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바가 없어요. 제 남은 과제가 이런 맥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최 박사는 이런 장인과 맥을 중심으로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문화재를 재조명하게 되는 효과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예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한 청허당대사 진영을 들여보겠습니다. 이 진영은 화기가 없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승장을 중심으로 조사하면 다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703년에 행규 스님이 쓴 <용천지>에 당시 의상, 보각, 청허, 송운, 동운 등의 진영을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진영이 양식적으로 시기가 앞선 작품일 것으로 추정되고 문헌이 남아있어 같은 작품으로 보아도 충분합니다. 이를 토대로 1700년대 전반에 그려진 다른 진영과 청허당대사 진영을 비교하면 18세기 초반 진영의 양식적인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LA카운티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범어사 칠성도와 미국 포틀랜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도 운문사 신중도의 제작 시기와 사찰 등도 최 박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밝혀냈다.

"당시에 사찰에서 불화를 조성할 때 유명한 스님들을 초빙하면서 여러 점을 함께 만들었죠. 포틀랜드박물관에 소장된 청도 운문사 신중도의 경우 화기가 잘려진 상태로 일부 글자만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운문사, 운흥사 신중도의 화기와 대조하면 화기가 동일했죠. 동일 시기에 한 스님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승장 조명은 문화재 환수에도 활용

이런 최 박사의 노력은 지난 2014년 5월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도산 불교문화재 환수까지 이어졌다. 당시 인사동 마아트옥션에 출품된 불교문화재를 조계종 불교문화재 도산백서 등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근거를 밝혀냈고, 조계종 표창까지 받았다.

실전교육

**퇴마술, 최면술, 기공술
교육 이수후 자격증 부여**

- 실전교육 퇴마사 **현오스님** 직강
- 부산 구포역센터 (월·화)
- 총무원 성봉사 (수·목·금·토·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 1196-1
- 방문시 예약필수

**대한불교 약사불종 총무원
한국 빙의·퇴마·최면 연합회 본부**
☎ 1899-8108 / 010-9229-3801

역사 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제 1편 처방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진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앓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품 나고 멧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지은이 최태규 | 파낸곳 배문사 | 412쪽 |
가격 20,000원 (배송비 포함)
통형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 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 ② 의로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낫지 않는다.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mm 금강제인팔찌 B형 115,000원

10mm 반야심경 평반지 42,000원

10mm 반야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mm 금강저팔찌 115,000원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10mm 만자 팔찌 130,000원

3mm 4mm 5mm 6mm 7mm 8mm 1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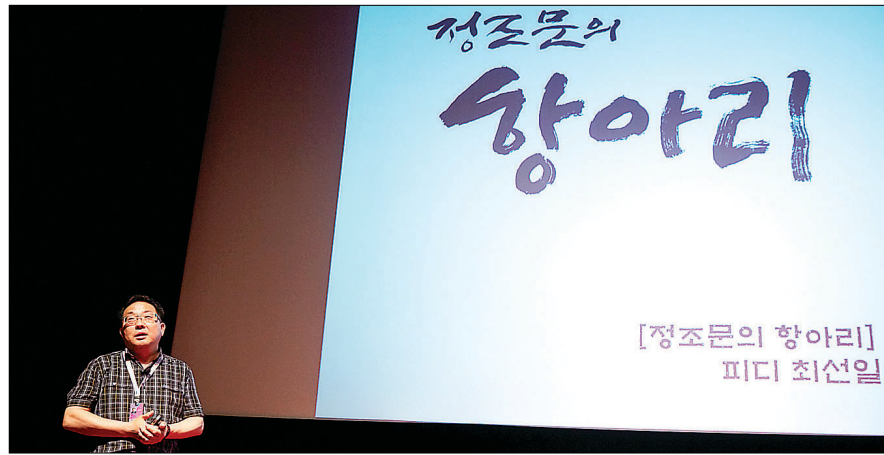
「인터넷·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목걸이·팔찌·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주얼드림)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치렵니다”



2008년 3월 화성 유수자 지정전 불상 조사 모습.



2015년 5월 전국국재영화제서 영화 '정조문의 향아리'를 선보이는 최선일 박사



최선일 박사가 펴낸 저서들, 상단의 책들이 <조선 후기 승정인명사전>이다.



2015년 6월 나무회 전시회를 진행하는 최선일 박사

“예를 들어 당시 고성 옥천사 나한상 2점의 경우 옥천사에서 도난당한 7점 중 일부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나한상은 색난 스님의 작품인데 사진 상의 유사점과 함께 현재 이 도난품의 양식 등이 색난 스님 작품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대야했지요.”

최 박사는 승상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결국 해외에 유출된 불교문화재를 환수하는 데도 이어진다고 했다.

“여러 사정이 있지만 결국 불교문화재가 해외에 떠도는 것은 우리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만들어 집니다. 우리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자들이 찾게 됩니다. 또 소장하는 이들도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돼 더욱 잘 보존하게 되고, 인연이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런 취지에서 인간문화재 20여 명으로 구성된 나무회 모임도 후원하고 있다. 나무회는 해외반출문화재를 재현해 전시활동을 진행하고, 이 수익금으로 해당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보통 20~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예요. 전통기법을 이어 이 시대에 재현하는 것도 무형의 재산입니다.”

문화재는 모두가 향유해야 할 자산

최 박사는 문화재는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하는 자산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 내 한국문화재를 수집하고 가치를 재조명해온 정조문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정조문 선생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정조문의 향아리' 제작에 PD로 참여하기도 했다.

“정조문 선생은 한국의 간송 전형필 선생과 같은 분입니다.

재일교포로 일본인이 수탈당한 한국문화재를 일본에서 보며, 민족의 정신이 강탈당했다고 느껴서요. 1924년 6세 나이로 일본에 건너가 파칭코 사업으로 번 돈을 스스로에게는 쓰지 않고 그 돈으로 한국문화재 1700여 점을 수집합니다. 이어 일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인 교토에 고려미술관을 세워 한국문화재를 알렸죠.”

여기에 최 박사는 2001년 고려미술관이 소장한 색난 스님이 만든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을 조사하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를 그렇게 흔쾌히 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문화재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고려미술관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조문 선생님의 큰 말이 운영하는 교토의 찻집에 가면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생전에 만나지도 못했지만 이를 통해 정조문 선생님의 사상과 사고를 흠모하게 됐습니다.”

최 박사가 제작한 '정조문의 향아리'는 3년 동안 340명의 후원을 받아 만들어졌으며 전주 국제영화제와 DMZ다큐영화제에 초대작으로 상영됐다.

최 박사는 승상에 대한 연구도 결국 우리 문화재를 함께 공유하자는 취지에서라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개별 스님에 대한 자료는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학자들 사이에는 자료를 독점해 갖고 있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발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후학들을 위해 제공해야 학문도 발전하는 것이지요. 승상에 관련된 사건을 내고, 또 관련 자료를 책으로 계속 내는 것도 다른 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입니다.”

최 박사는 “불화승, 주종장, 목수, 와장, 각수 등 승강 활동에 대한 전체 조사 후 개별 작가론, 평전 연구로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을 맺었다.

불교문화재 공유하는 센터 건립이 꿈

현재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최 박사는 2009년 6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도 세워 학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인연을 맺은 대원사 석문 스님이 소장으로 최 박사는 현재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17명 남짓한 이곳은 함께 공부하는 이들의 공동체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곳이지요.”

학자로서는 북한의 문화유산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박사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전문위원으로 북한 불교문화재를 총망라한 <북한의 문화재> 간행에 참여했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차원에서 2016년 개성의 문화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연다.

최 박사는 우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서적을 모은 문화센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현재도 연구소에 중보된 서적 등을 속초 보광사에 보내 불교도서관을 만드는 데 돕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사찰은 문화재를 홈페이지 등에 올리고,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찰 역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찰에서는 문화재를 조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량이 되는 한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교문화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을 때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 부처님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발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다. 많은 발원 중에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미소와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있다. 또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법문을 들으며 불교경전을 마음껏 소리 내어 읽고 싶어 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부처님의 숨결이 흐르는 산사에 혼자서 걸어가서 3배라도 해보고 싶어 하는 발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장애인 법우들이 있다.

불교경전에는 장애인이란 명칭은 없지만 <약사경>에는 ‘일시적인 병에 대해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은 병으로 병(病)의 상태가 감소되거나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을 것이다.

장애가 전생의 업(業)이라는 것도 불교를 잘못 해석해서 내린 오해라고 이들에게 설명했다.

“불교에서는 요즘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자활운동을 부처님 당시부터 실시하였으며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도 그럴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바로 불리던 주다반다카를 제자로 삼았으며 수행 중 실명한 아니루타 존자를 십대 제자로 삼았다. 부처님께서도 현재 지체 및 지적장애인들이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스스로의 장애를 자신의 수행으로 극복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였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의 선구자가



그림 · 박구원

필자는 1993년 우연한 기회에 수화를 배울 수 있었다. 동국대와 강원을 졸업한 후 조계사 원심회에서 수화를 배웠다.

처음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는 안타까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 주리라는 발원을 하였지만 나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 스님이 수화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몹시 의아해 하며 설마 하던 생각 장애인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언어를 배우려 한다는 것과 스님이라는 특별한 호기심이 합쳐져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그러면서 수화로 대화를 통한 무렵 불교에서는 장애인을 죄인 취급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스님, 사찰에 가면 우리 장애우들을 보면 좋지 않게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전생에 업이 많아 이렇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불길하다며 피하기도 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장애인 포교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를 보는 이런 인식부터 없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만약 불교계에 장애인단체가 많아서 장애인도 포교가 활성화된다면 이런 질문은 나오지 않았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다”는 이야기를 하면 “정말이냐”며 반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흡족해 하곤 하였다.

장애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찰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부처님께 예불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이중의 장애라고 할 수 있다.

인근사찰에서 진행되는 새벽 예불에 참석하고 싶지만 비장애인 불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줄 것 같아서 새벽은 물론이고 아침시간에는 도저히 기도에 동참할 수 없다는 가슴 아픈 소리도 자주 들었다.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 관계없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건만 아직도 장애인들이 법당도 마음대로 참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진 평등사상을 견주어 볼 때 장애인도 부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 어디서든 그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의 작은 아픔을 지냈기 때문이다.”



해성 스님(연화원 이사장)

2016년(불기2560년) 불교캘린더 출시!!!

뛰어난 작가의 작품을 엄선하여 더욱 다양하게 제작하여, 좋은 품질 · 저렴한 가격으로 각 사찰 · 암자 · 포교당 등 대 · 소량 주문과 납품이 쉽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야기획 GAYA ENTERPRISE 가야기획 카렌다는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